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계절인 추석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참된 복에 대해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이렇게 풍성한 명절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화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식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올리브나무)와 같습니다.
3절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묘사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를,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마주 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한해를 살아가다보면 때로는 서운한 일도,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예수 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어린 감람나무로 단단하고
푸르게 자라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대를 이어 흘러가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축복합니다.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과 믿음의 유산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 세대를 거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족이 누리는 평안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그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는 날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있는 우리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예배순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지난시간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89장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 때나 기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6절 다 같 이

- ¹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 ²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 ³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 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 ⁵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 ⁶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말 씬 식탁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가족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